

삼보사찰 순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다

10월 3일 19교구본사 화엄사 당도해

구례=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10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자공)에서 입재한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문화와 더불어 중생과 호흡하며 이어지고 있다. 순례 3일차인 10월 3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 당도한 순례대중은 느리지만 묵묵한 발걸음으로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모아나갔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8개 순례조를 중심으로 지원단까지 150여명으로 구성됐다. 순례단은 새벽 세시 경, 철쭉 같은 어둠을 도반으로 순례를 시작해 새벽 짙은 안개를 뚫고 한결같은걸음 나아간다. 길에서 휴식을 취하고 길에서 공양을 하며, 지나가는 사찰 곳곳에서 불자와 지역민들을 만나 희망을 전하고 있다.

밤에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인 텐트에서 숙영하며 내내 새벽 이슬과 추위에 몸을 내맡긴 채 하루하루 이어지는 순례다. 낮에는 뜨거운 가을 햇볕이, 밤에는 습기가 순례대중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이지만 묵묵히 발걸음은 지속된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거처가는 지역 곳곳에서 지역대중, 그리고 문화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하루 전날인 10월 2일 사성암 아래 주차장 숙영지에서는 ‘길 위에서 길을 찾다’ 공연이 진행됐다. 20분 남짓 짧은 공연이었지만 순례대중 외에도 지역 주민들과 사성암을 찾은 관광객들이 함께하며 소박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공연이 끝난 후 주차장 내 텐트를 치고 숙영한 대중들은 10월 3일 새벽 2시 30분 잠에서 깨어 순례를 시작했다. 3시경 간단한 입재식으로 하루일정을 점검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하루 25km, 차로 이동하면 30분으로 충분한 거리지만, 묵언 속 한결같은걸음으로 나아가는 순례단에게는 6~7시간 가량 소요되는 긴 코스다.

전날 숙영지 사성암서 새벽 3시 출발

밤엔 습기와 추위, 낮엔 가을볕·더위
쉽지않은 여전서 묵묵히 발걸음 지속

지나는 사찰마다 ‘문화행사’로 한마음

고통받는 국민에 희망 전하는 법석돼

새벽 3시 숙영지를 나선 순례단이 구례 화엄사에 당도한 시간은 오전 10시경. 주지 덕문 스님이 일주문에서 순례단을 마중했다. 일주문을 지나 1km가량 이어진 순례길에는 화엄사 대중들이 나와 박수로 이들의 원력과 노고를 격려했다.

화엄사는 순례대중의 원력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화엄문화축제의 올해 주제를 ‘화엄, 길 위에 서다’로 정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 여파로 움츠러든 국민들에게, 올해 역시 아름다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지난 9월 29일 10여년의 보수로 재단장을 끝낸 사자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의 첫 대중참배도 순례단의 몫이다.

화엄사 조실 명선 대중사는 화엄사 대중을 대표해 순례단을 환영했다. 명선 대중사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한국불교 역사적 전통을 잇는 순례,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순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화합을 발원하는 순례”라며 “의미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월선원 만행경사로 시작된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의 원력이 이번 순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화엄사 역시 최근 사자자삼층석탑 복원불사를 화합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인연이 지중하다. 화엄사와 순



순례 3일차인 10월 3일,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에 당도한 순례대중은 느리지만 묵묵한 발걸음으로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을 차곡차곡 모아나갔다.



사성암 숙영지에서 진행된 공연.



화엄사에 당도한 순례단.



주호영·이원욱 의원도 참석했다.

례단의 인연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덕문 스님도 “아름다운 가을의 한 가운데서 열린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날을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 특히 사자자삼층석탑 복원 불사 후 첫 단체순례로 의미를 더한다”며 “순례단 전원이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건강하게 원만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순례 3일차인 이날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원력을 보냈다. 이원욱 정각회장은 “수행의 길을 걸으며 마음자리를 돌아봤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이 마치 국난과 같기에, 국민들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며 “순례의 원력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개인적으로도 국민통합

에 대한 고민 속에 ‘화쟁의 가르침’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화엄사에 당도해 각 각황전을 비롯한 전각들을 참배한 순례대중들은 오후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 행사인 화엄음악제에 함께했다. 화엄사 경내를 장엄한 패물 앞에서 진행된 음악제는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순례대중의 발원을 선율에 실어 널리 확산시키는 매개가 됐다는 평가다.

국민에 치유·희망 전한 화엄문화축제 성료

화엄사, 10월 1~3일 패물재·음악제 등

‘화엄, 길 위에 서다’ 주제로

마지막날 천리순례단 함께

‘화엄, 길 위에 서다’를 주제로 3일간 청명한 가을하늘을 장엄한 화엄문화축제가 성료했다. 올해 화엄문화축제는 마지막날 화엄사에 당도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 한 문화법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은 10월 3일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 법석인 ‘화엄음악제’를 개최했다. 음

악제는 콰르텟 코아모러스(Quartet Coamorous)의 인트로 연주로 무대를 연 화엄음악제는 정호승 시인의 시낭송과 국악인 박정선 명창의 단사 사철가와 남도민요, 여성전통 타악그룹 도도의 퓨전 타악, 팝페라그룹 아미의 중창, 라파우사 뮤지엄 공연에 이어 초대가수 소찬휘의 특별공연까지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으로 이어졌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원력을 모아가고 있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도 이날 음악제에 함께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2600년전 길에서 나서서 길에서 진리를 전하다 길에서 열반

에 든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아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중흥 원력을 잇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려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를 순례 중”이라며 “이번 화엄음악제에는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423km의 대장정 중 3일차에 화엄사에 도착한 천리순례단이 함께해 더욱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화엄음악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선사하고 구례군민에게는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화엄’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은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 화엄음악제.

상월선원 결사를 상징하는 장군 죽비를 덕문 스님에게 전했다.

한편 화엄문화축제는 10월 1일 화엄숲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인문학 강의와 버스킹 공연, 영화 상영에 이어, 10월 2일 ‘화엄사연산화페스티벌’을 경내 앞마당에 장엄하는 패물재를 거행했다. 그간 화엄사는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로 모사본을 내걸어 패물재를 봉행했지만, 올해는 코



회주 자승 스님이 덕문 스님에게 죽비를 전달했다.

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패물재 당일 진본을 모셨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화엄문화축제를 통해 구례군민들이 위로를 받고 모든 존재가 가치를 인정받아 서로 화합하는 화엄법계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깊은 가을밤 행사를 마련해 주신 화엄사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구례=송지희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부장

www.palgwanhoe.or.kr

[2021팔관회보조금지원사업임]

- 선재동자 수계법회 오후 1시
- 호국영령위령재 오후 2시
- 호국기원법회 오후 3시
- 팔관재계수계법회 오후 4시

2021년 10월 16일(토)

금정충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2021팔관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0월 16일(토) 오후 4시
BTN불교TV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주최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주관 2021 팔관회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불교총연합회

신도회

BTN

불교TV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400호(양정동, 불교회관) 051)867-0501~3